



[영양건강] “식물성 대체우유, 우유대비 미량영양소 함량 낮아”

– 일반 우유 대비 마그네슘, 인, 아연 및 셀레늄 함량 적어



식물성 대체우유 대부분이 주요 미량영양소인 마그네슘, 인, 아연 및 셀레늄 함량이 일반 우유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화학회 학회를 통해 아몬드, 캐슈넛, 코코넛, 헴프씨드, 오토, 완두콩, 쌀 및 콩으로 만든 식물성 대체우유 샘플 85개를 분석한 결과 완두콩을 제외한 대체우유의 미량영양소 함량이 일반 우유에 비해 적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아몬드 우유의 경우 성장 및 조직재생에 필요한 인 함량이 우유에 비해 1/9 정도 수준이었으며, 완두콩 우유의 경우 면역체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셀레늄 함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물성 대체우유를 섭취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다른 식품이나 음료를 통해 결핍된 미량영양소를 섭취해야한다고 강조되었다. < 출처 : newscientist.com, 8월 24일 >

[교역동향] 스리랑카, 유제품 등 소비재 수입 금지

– 외화 절약 조치로 300여개 소비재 수입 일시 중단



스리랑카가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국가 부도가 발생하며 최악의 경제난에 처한 가운데, 외화를 아끼기 위해 유제품을 비롯한 소비재 수입을 금지했다.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8월 24일부터 유제품, 화장품, 전기제품, 전기 및 전자 제품을 포함한 300여개의 수입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금속 가공 및 포장 기계 등 일부 산업용 기계의 수입도 중단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 23일까지 선적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9월 14일까지 세관 통관이 허용된다.

스리랑카는 대외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재정 정책까지 실패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고 공식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리랑카 낙농협회도 낙농업계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 의약품 및 보충사료를 수입하지 못해 원유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 출처 : economynext.com, 8월 23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